

# 철저한 맞춤형전술·로테이션... 김학범 '팔색조 전술의 매직'

## 한국 첫 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우승

### 조별리그 상대 팀 완벽 분석 매 경기 5명 이상 선발 교체 원두재·오세훈 등 고른 활약...대회 전승 우승 금자탑

용병술과 선수들의 투지가 한국 축구의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의 대회 2연패를 이끌었던 김학범(60) U-23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번에는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한국의 첫 우승을 일궈내면서 '우승 청부사'로 우뚝 섰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회 결승에서 연장 후반 8분 터진 정태욱(대구)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기고 첫 전승 우승(조별리그 3경기·8강·4강·결승)의 신화를 썼다.

김 감독은 상대 팀의 전략에 맞춘 철저한 로테이션으로 이번 대회 첫 전승 우승(6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정해진 '베스트 11' 없이 23명의 선수가운데 누가 출전해도 새롭게 '베스트 11'이 꾸려지는 게 김학범호의 힘이었다.

김 감독은 대회를 앞두고 조별리그에서

만날 세 팀의 전략을 완벽하게 분석한 맞춤형 전술을 마련해 선수들과 '반복 훈련'을 펼쳤다.

상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발 라인업'도 이미 완벽하게 마련됐다. 특히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평가하는 '생존 경쟁'도 이어졌다.

김 감독은 조별리그 중국과 1차전을 마친 뒤 이란과 2차전에는 1차전 선발 명단에서 무려 7명을 바꿨다.

우즈베키스탄과 3차전에서는 6명의 선발 라인업을 교체하더니 요르단과 8강전에서는 8명이나 변화를 줬다.

호주와 준결승에서 5명을 바꾸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결승전에서는 왼쪽 풀백 김진야(서울)를 오른쪽 날개로 투입하는 변칙 전술을 가동하는 등 김 감독은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상대가 예상할 수 없는 '팔색조 전술'로 기어이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번 대회 우승 원동력은 선수들이 투지와 끈기였다. 대회 최우수선수상(MVP)

을 받은 원두재(울산)를 비롯해 모든 선수들이 활약했다.

오세훈(상주)과 조규성(안양)은 나란히 2골씩 기록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결과를 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이동경(울산·2골)이 빛을 봤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원두재(울산)가 가장 돋보인 가운데 맹성웅(안양)과 김동현(성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측면 날개에서도 김대원(대구·1골)과 이봉준(부산·2골)이 이름을 올렸다.

좌우 풀백 역시 김진야(서울)와 이유현(전남)이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친 가운데 강윤성(제주)도 좌우 풀백을 모두 맡으면서 제 몫을 했다.

중앙수비는 정태욱(대구), 이상민(울산)이 확실한 주전으로 인정을 받았다.

골키퍼는 특수 포지션의 영향으로 송범근(전북)이 6경기 모두 나서 '남버 1' 골키퍼의 역할을 다했다.

김 감독은 "아시안게임 경험이 큰 도움을 줬다. 두 팀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던 게 잘 맞아떨어졌다"라며 "이것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두 팀을 만드는 데 주력한 이유다. 선수들이 그 믿음에 보답해줬고 잘해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리가 해냈어” 26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라자망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승전. 연장 후반 정태욱(5번)이 천금 같은 결승골에 성공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FC 응원 가자!

### 2020시즌 유니폼 사전 판매

프로축구 광주FC가 컬러감을 더한 새 유니폼을 출시했다.

광주는 지난 23일 K리그1에 도전하는 2020시즌 착용할 유니폼을 공개하고 사전 판매에 들어갔다.

새롭게 선보인 유니폼은 홈 노란색·원정 흰색(골키퍼, 홈 하늘색·원정 분홍색)으로 지난해와 색상이 같지만 톤을 조정해 컬러감을 높였다. 또 어깨라인과



소매 부분에 검은색을 넣어 단정함을 더했다.

좌측 가슴에 위치한 엠블럼의 테두리는 빼면서 강인함을 강조했다.

신규 유니폼을 출시한 광주는 20% 할인과 한정판 켈미 장갑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유니폼은 광주FC 공식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월 5일 오후 12시까지 사전 판매가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시즌권 사전 예약판매

프로축구 광주FC가 2020시즌 시즌권을 사전 예약판매한다.

2020시즌권은 총 25회의 이용권(동반 입장 가능)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W석은 성인권 9만원, 청소년권 6만원이다.

홈 응원석인 E/N석은 각각 8만원과 5만원에 판매된다. 단 전용구장 개장 전 사용하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S구역이 홈응원석이 된다.

2020시즌권은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디자인됐으며 배경에 숫자 10이 표현되어 있



다. 좌측 하단에는 10주년 기념 엠블럼이 홀로그램으로 들어가 세련미를 더했다. 성인권은 노란색, 청소년권은 빨간색이다.

시즌권을 구매한 팬들에게는 목걸이와 사인볼 교환권이 선물로 증정된다.

시즌권은 23일 티켓링크(ticketlink.co.kr)를 통해 사전 예약 판매되며, 2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한편 광주의 시즌 첫 경기는 3월 1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는 성남FC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고 K리그1 복귀를 알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 드래곤즈, 안양서 첫 승 사냥

### 프로축구연맹, K리그 2 일정 발표...다음달 29일 첫 경기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안양에서 승격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하나원큐 K리그2 2020 정규 라운드(1라운드~36라운드)와 플레이오프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2월 29일 오후 3시 스타트를 끊는 K리그2는 11월 1일 마지막 36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K리그2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전남은 FC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전남의 홈 개막전은 3월 8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하게 된다.

전남은 지난 시즌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으로 파비아노 감독을 영입하며 승격을

노렸지만, 초반 부진으로 사령탑이 중도 경질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전경준 감독대행 체제로 전환한 전남은 시즌 막바지 순위 싸움에서 '다크 호스'로 역할을 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광양 루니' 이종호를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이는 등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한 전남은 '원팀'에 초점을 맞추고 베트남에서 1차 전지훈련을 끝냈다.

전남은 내달 2일에는 남해로 건너가 육석 가리기를 끝낼 예정이다.

올 시즌 K리그2에서는 사령탑들의 지략 대결이 흥미롭게 전개될 전망이다.

'대행' 타이틀을 떼어낸 전남 전경준 감독과 함께 남기일(제주), 설기현(경남), 정정용(서울이랜드), 황선홍(대전) 등 새

로 지휘봉을 잡은 사령탑들이 우승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두 팀의 성적 예도 관심이 쏠린다.

대전이 하나금융그룹을 모기업으로 해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재출범하고, 아산은 완전한 시민구단으로 탈바꿈해 충남 아산으로 K리그2 무대를 누빈다.

한편 K리그2 10개 팀은 정규리그 36라운드 대결을 통해 우승팀을 가린 뒤, 11월 4일 'K리그2 플레이오프' 일정을 시작한다.

K리그2 정규 라운드 3위팀과 4위팀이 11월 4일 준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를 벌이고, 11월 7일에는 정규 라운드 2위팀과 준플레이오프 승리팀이 플레이오프 대결을 갖는다. 이 대결의 승자는 K리그1 11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